

한국타이어, 중국시장 1위 굳히기

가흥공장 증설 이어 제3공장 건설 검토 ... 시장점유율 20%로 선두

중국 타이어 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한국타이어가 설비를 확대하는 등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한국타이어 중국지역본부장인 허기열 사장은 4월21일 중국 상하이(Shanghai)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규모 확대가 절실하다”며 “기존의 가흥공장 증설을 1월 착수했고, 제3공장을 추가로 짓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1994년 중국 베이징(Beijing)에 지사를 설립한 이후 Zhejiang에 가흥공장을, Jiangsu에 강소공장을 건설해 현재 2900만개의 타이어를 생산하고 있다.

공장 설립시점이 다른 곳에 비해 비교적 일찍인 덕분에 한국타이어는 공장 가동 4년만인 2003년 승용차용 타이어 시장에서 미쉐린(Michelin), 굿이어(Goodyear) 등 글로벌기업들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으며, 시장점유율 20%로 선두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 2009년 판매된 자동차는 총 1300만대로, 전년대비 50% 성장하는 등 시장이 급속히 커지고 있어 타이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한국타이어는 전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4/22>